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국가*

이진혜 일본학술진흥원 외국인 특별연구원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의 한인을 이른다. 이들은 제정 러시아기 조선에서 극동으로 이주한 후, 소련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수민족이었으나 소련 해체와 각국의 독립선언으로, 현재는 각 독립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하나의 민족 카테고리로서의 '고려인'에서 '러시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등과 같이 분화되고 있다. 또한 고려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체제와 민족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해당국 소수민족으로서의 입지는 변화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고려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를 사례로, 제정 러시아기와 소련 그리고 포스트 소련기의 국가와 민족의 의미와 변화,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생과 다문화주의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들과의 비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구소련, 카자흐스탄, 고려인, 국가, 민족

I.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의 한인을 이른다.¹ 이들은 전 세계 약 750만 코리안

* 본고의 II장 3절은 박사학위논문(李眞惠, 2019, 【學位論文】現代カザフスタンにおける高麗人(コリョ・サラム)社会の変容. 京都大学大学院アジア・アフリカ地域研究研究科)의 V장 4절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¹ 고려인 아이덴티티의 규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1937년 강제이주다. 그러나 현재 고려인사회 내에는 강제이주를 경험한 자와 그 후손 외에도 다수의 중첩적인 서브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조사지역인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및 경제적 배경이 상이한 그룹들은 시기적으로 소련기를 거쳐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개념과 소련 해체 후 새롭게 형성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두 개념은 현대의 고려인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에 의해 그곳에 정착한 자, 그보다 후에 소련기에 카자흐스탄에

디아스포라의 일부이기도 하다(대한민국외교부, 2019: 14). 현재 한국 내 연구상에는 재소한인, 구소련한인, 고려사람, 고려인 등 이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이 혼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에서 가장 통용되고 있는 고려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고려인의 역사는 조선시대 기근과 질병 그리고 가혹한 수탈을 피하고,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연해주로 이주한 소수의 조선인 월경민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것이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기 극동으로의 고려인 최초 이주다. 극동지역에 정착한 고려인은 조선에 남은 가족과 친지들을 불러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민족정책에 의해 고려인은 삶의 근거지를 그대로 남겨 둔 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다.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에게는 제한된 지역과 구역 외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1953년 스탈린 사후 포스트 스탈린기를 맞으며 고려인에게 이동의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들의 본격적인 민족적 권리의 복권과 명예 회복은 1980년 후반 페레스트로이카²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사회는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15개의 독립국가 탄생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련 해체 후 형성된 각국에서는 각국의 기간민족(titular nation)³을 중심

살기 시작한 자(북한에서 망명한 자,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한 자, 사할린으로부터 이주한 자 등), 소련 해체 후에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 또는 구소련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자 등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존재로서 인식되며, 각각의 상이한 호칭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인 내부의 거주지역 또는 출신지에 따라 다른 호칭과 아이덴티티가 출현한 것은 이들이 겪어 온 이주의 역사, 한반도 및 국제적 정세, 소련 해체 및 구소련 국가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李眞惠, forthcoming). 따라서 구소련 지역의 ‘한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한 고려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려인사회가 형성된 역사적인 경위, 그들을 일컫는 호칭 등에 대한 별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필자는 구소련 지역의 한인 또는 고려인을 지칭하는 대상으로 특정한 시대의 분절적인 의미보다는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연해주 이주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공간에서의 연속적인 의미로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²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뒤 소련경제의 병폐에 대해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착수한 개혁정책이다(高橋清治, 1990: 207). 페레스트로이카의 주된 골자 중 하나는 글라스노스티이며 이는 기성 신문 및 잡지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李眞惠, 2017: 178).

³ 基幹民族, 국명에 그 명칭을 붙여 해당국의 주요 국민 또는 민족 집단으로 상정되는 민족을 이른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인이 기간민족이 된다. 국내에서의 ‘명칭민족’ 또는 ‘명목민족’으로 번역되는 용어의 사용과 그 용례가 동일하다.

으로 한 국민통합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민통합에 대한 소수민족의 대응 형태는 다양하고, 그들의 아이덴티티 또한 각기 다르게 형성 및 전개되고 있다.

제정 러시아기 월경민으로서 조선에서 극동으로 이주한 이래, 고려인은 ‘소련’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수민족이었고 현재는 ‘각 독립국’에 속한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이해된다. 또한 고려인은 민족 카테고리로서의 ‘고려인’에서 ‘러시아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등과 같이 분화되고 있다(김계르만, 2014: 259). 또한 각국의 고려인으로 분화된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각각의 상이한 형태로 각국의 특성에 따라 전개하고 변화되고 있다.

2. 선행연구의 분석

구소련 지역의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소련 해체 후인 199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과거의 정치적 금기가 무너짐에 따라 종래의 알려지지 않았던 방대한 연구자료가 대중에 공개되었고,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자의 왕래 또한 활발해짐으로써 1990년대를 기점으로 소련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半谷史郎·岡奈津子, 2005: 68). 그 시기부터 고려인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동안의 축적된 소련 연구자에 의한 연구의 결과물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야와 오카(半谷史郎·岡奈津子, 2005)에 따르면, 구소련 고려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소련 붕괴 후 독립국의 국경에 의해 연구범위가 구획되어 소련 해체 이후 새로운 국경선이 연구자의 관심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으로 구획된 영역에서의 고려인사회를, 여전히 구소련 전체라는 통일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는 이를테면 고려인 사회에 대한 가장 큰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주제는 ‘1937년 강제이주’이고, 그 밖에도 스탈린기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정착, 조선인의 극동 이주와 같은 고려인의 이주사가 연구의 주류를 점해 왔다. 그러나 이는 국경이라는 범위 안의 고려인사회를 규정하는 분야라기보다는 제정 러시아기부터 소련기 전체에 이르기까지, 즉 고려인이라는 하나의 민족 카테고리 전체의 역사를 포괄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각 국가나 지역을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전개되고 있는 고려인사회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현대의 고려인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의 고려인 연구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려인사회의 변화의 형태와 양상이 각기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성동기(2009)는 독립 후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사회의 변화 양상이 상이함을 사례로, 현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구소련 각국의 고려인사회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 틀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각국의 고려인사회를 새로운 방법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문(2012)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등지와는 구별되는 타지키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그는 구소련 해체 이후 타 중앙아시아국에서의 경제적 동기, 기간민족주의 등과 같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비해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그 이주의 동기가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적했다. 소련 해체 직후 내전이 시작된 타지키스탄의 특성상, 그곳의 고려인사회는 타지크문화와 고려인문화의 접변 등과 같은 지역의 고려인사회와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문화나 특징이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등지로 이주한 타지키스탄 고려인의 특징으로 도시 거주 지향적이라는 것, 높은 교육열을 보인다는 것, 가족, 친지 위주의 공동체 이주가 강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특징은 타지키스탄 고려인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구소련 고려인 전체의 특징이기도 하다(김계르만, 2014: 262-263).

또한 신형진·이채문(2015)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성에 대해, 고려인사회의 형성 동기가 강제이주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는 다르게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의 선택적 이주로 형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신형진과 이채문이 제시한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 또한 소련기를 거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구소련 지역의 모든 고려인의 특징과 동일하다.

한편 황영삼(2014)은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에 대해 그 형성의 역

사적 경위와 독립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려인사회의 과제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체제이행기의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에 따른 고려인사회의 변화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개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려인사회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소련 연구 및 고려인 연구 자체가 가능해지고 활발해진 시기와 소련 해체 및 포스트 소련기의 도래가 거의 맞물려 나타났으므로, 소련 해체 후 체제이행기의 구소련 각국에 대한 연구가 착실히 수행되기까지 요구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구소련 국가 중에서도 매우 폐쇄적인 대외정책으로 연구 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해 왔다. 또한 타지키스탄의 경우 내전 상황이 소련 해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으므로 그곳의 고려인사회는 유지되기 힘들었고 고려인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다. 그러한 경위로 앞서 언급된 연구들에서 지적된 그들의 특징이란 구소련 지역 고려인사회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기 고려인사회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고려인사회를 비교함으로써 해당국 고려인사회 고유의 특징을 규정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내의 타 민족과의 비교를 통해 고려인사회의 특징을 검토한다면 그것 또한 현대의 고려인사회의 특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대 각국의 고려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를 사례로,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제정 러시아기와 소련 그리고 포스트 소련기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족의 의미와 그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들과의 비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분화되어 전개 및 변화하고 있는 고려인사회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고려인의 과거의 국가였던 소련, 그리고 현재의 국가인 중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현재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생과 다문화주의의 논의 가능성을 제고하며, 카자흐스탄 타 민족

과의 비교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있는 민족 중 하나로서 고려인의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고려인의 정체성

1. 고려인의 국가, 소련과 중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족

소련 해체 후, 신생 국가들은 네이션 빌딩 또는, 국민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새로 성립된 국가들의 공통 과제다. 그러나 시오카와(塩川伸明, 2004: 104-105)는, 구소련 국가의 경우,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많은 신흥국가와 달리 독자적인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련에서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일정한 형태의 네이션 빌딩이 충실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신흥국에서처럼 미성숙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소련 국가에서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소련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강조되어 구축되어 왔다. 또한, 소련은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과 같이 연방제를 염두에 둔 지역통합원리에 의한 행정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민족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 국가였다(渡辺日日, 2008: 73-74). 이처럼 민족을 단위로 한 소련이라는 국가의 각 민족공화국은, 소련 해체 후 소련의 한 민족으로부터 그 한 민족을 기간민족으로 하는 국가로 탄생했다.

소련 해체 후, 민족 문제의 기본 전제가 크게 달라졌다. 즉, 지금까지의 소련의 범위에서의 민족 문제라는 틀에서 논해져 온 것이, 독립된 국가(또는 독립국의 지위를 얻지 못한 소수민족들은 이들 국가에 속하게 된다)의 민족 문제가 된 것이다(塩川伸明, 2004: 104). 또한 독립국이 된 각국은 각각의 네이션 빌딩에 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도 단일 민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해당국의 기간민족을 중심으로 국민국가형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기간민족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각국의 국민 통합은, 기간민족을 근간으로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에 모든 민족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 양측은 때때로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각국은, 기간민족 중심의 정책을 골자로 비기간민족의 다양성 또한 수용해 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독립국으로 탄생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련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소련기 그 개념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련과 독립국이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라는 개념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국가라는 개념에 얽매이는 정치적 조직체의 형태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타니(中谷義和, 2012: 508-511)에 의하면, 국가란 존재론적으로는 사회 및 경제, 또는 정치 공간으로 구성된 여러 관계의 복합적·중층적 총체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또한, 국가란 지구 규모의 지리적 공간을 국가라는 공간으로서 정치적으로 유계화함으로써 성립하는 관계론적 개념이기도 하다.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구분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행정 구획화함으로써 국민적 규모에서 사회적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적 공간은 사회·경제 및 통치 관계의 중층적 구조에서 편제되었으며, 국민 국가에서는, 그 주민을 민족이라고 부른다. 네이션이란 민족 또는 국민이라고 번역되지만, 민족이나 국민 이외의 다의성을 갖고 있다. 네이션이란 개념은, 나라(country)·민족 집단(ethnic group)·인종(race) 국가(state)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앤더슨(Anderson, 1991: 6)에 의하면, 네이션이란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다. 또, 그것은 본래 한정된 것이며 주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든스(Giddens, 1985: 116)는 네이션을 명확하게 구획된 영역에서 실재하는 집합체로서 규정하고, 단일 체계적 행정에 따르며, 내외의 국가적 장치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네이션은 민족 집단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영역이나 국가적 장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국가의 국민적 규모의 통일과 국가적 제한의 원리와 복합적 구성에 의해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네이션은 시민혁명기의 여러 성과이며, 역학의 역사적 소산으로, 공민(citizen)의 개념과 결합하여 근대의 정치적 시스템의 배양기가 된다. 이것은 소속된 주민이 정치적으로

구획됨으로써 국적화되고, 또한 에트니를 기초로 한 정치 체제의 시민적 전환이 요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네이션이란 역사적 소산으로, 국가에 있어서 스스로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내셔널리즘은 그 이념적 추진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中谷義和, 2012: 517).

한편, 에스니시티에 대해서, 그것은 사회적·정치적 문화의 주요한 형식 일부를 이루는 한편, 구조적 통합의 주된 형식의 일부 또한 이루고 있다. 이른바, 민족적이라고 불리는 집단 사이의 신체적·심리적·문화적인 차이에 관한 사회적·정치적 정의의 생산과 재생산에 근거한다, 또한 이러한 집단과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 즉 협동, 투쟁, 분쟁, 지배, 계승 등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스니시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문화, 종교, 내셔널리즘, 인종의 개념과 결부(연결)되어 있다(マルティニエッロ, 2002: 26-27).

에스니시티에 대한 개념의 논쟁이 있지만, 마르티니엘로(マルティニエッロ, 2002: 20-21)에 의하면, 에트니, 에트닉, 에스니시티, 에트노로지와 같은 개념 모두는 동일한 그리스어의 어근에서 유래한다. 예를 들어 에트니는 그 단수형인 에트노스(ethnos)에서 파생되었고, 그것은 원래 도시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다. 에트니코스(ethnikos)는 ethnos의 형용사이지만, 여기에서 영어인 에스닉(ethnic) 및 에스니시티(ethnicity)에 대응하는 프랑스어인 에트닉(ethnique) 및 에트니시테(ethnicité)도 유래하고 있다. 그 의미는, 유대교도와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준 명칭이며, 이른바 이교도라는 것이다. 영어의 최초의 용법에서는, 에스닉은 민중, 타자, 외지인, 이교도를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었지만, 원래는 인종이나 인종화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네이션, 인종과 결부되어 19세기 이후 인종과 관련된 토론에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에트니(ethnie)라는 프랑스어는 내셔널한 경계를 무시하고, 인종적·문화적·감정적인 유대로 결합한 사람들을 지칭했다.

이러한 개념을 기본으로 한, 서구식 국민국가란 언어나 습속 등의 문화적 공통성과 시민권 등의 정치적 가치관의 공유, 또는 상호 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각 민족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요소의 복합성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국민국가는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의 결합사회로서 등장해 온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형성 과정은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시스템 생성과정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련에서는 상기의 개념들이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소련은 1차대전과 1917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붕괴된 후 형성된 공화국 연방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몇몇 제국이 붕괴하고 국민국가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붕괴된 제국이 재생되게 된 것이다. 그중 하나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1922-1991, 이하 소련)이다.

소련의 주체인 각 민족공화국은, 소련의 구성국으로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분리 및 독립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러시아는 연방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소수민족의 자치 공화국도 포함한다), 형식적으로는 15개의 공화국 중 하나의 공화국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련의 핵심이었다. 또한 러시아어는 소련의 공식 언어였고, 러시아의 애국주의와 민족적 자긍심이 소련 체제의 이데올로기 중심이 되었다(Yakobson, 2013: 358-359).

소련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소련의 네이션 빌딩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케다(池田嘉郎, 2012: 81)에 의하면, 소련의 네이션 빌딩은 이중 구조다. 즉, 소련 전체에 대한 귀속 의식의 조성을 공민적 네이션 빌딩, 각 민족 공화국의 형성을 에스닉 네이션 빌딩으로 구별하여, 양측은 동시에 진행되었다.⁴ 이케다는 이러한 소련의 네이션 빌딩은 공산당이 소수민족의 문화와 인원을 우대했다는 것으로, 먼저 낙후된 지역의 발전단계를 진행하여 근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친 후에,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민족의 소멸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소련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현에 의해 머지않아 민족이 소멸할 것으로 보았고, 그전까지의 과도기적 민족정책이 필요하다고 간주된 것이다.

소련 시대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의거해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제정기의 주

⁴ 야콥슨(Yakobson, 2013: 260)은, 공민적(civic) 네이션과 에스닉 네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공민적 네이션은, 정치 공동체, 국가,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한편, 에스닉 네이션은,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공민적 네이션은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유럽의 자유주의모델인 한편, 에스닉 네이션은 중앙유럽과 동유럽의 외국인혐오와 관련한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민 중 노동자와 농민이라고 하는 2개의 계급만이 소비에트 공화국의 시민이 되었고, 모든 민족은 소비에트 시민이라고 하는 공통의 귀속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시민⁵이기도 했다. 그 변화상을 살펴보면, 제정기의 모든 주민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계급으로 분류되었고 노동자들과 농민들만이 소비에트 공화국 시민이 될 수 있었다. 1917년에 정권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시민이나 계급이라는 근대 정치의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나 농민도 제정기의 신분제의 연장선에 있었다. 또한 제정기의 정치에 있어서 민족(народ,⁶ 나로드)이라는 단위는 에트노스 집단으로서보다는 신분이나 역사적 특권을 가진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대전이 발발한 후, 민족은 정치적인 주체인 국민이라는 근대정치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즉, 제정기의 신분으로서의 농민과 직업집단으로서의 노동자는 소련기에 이르러 근대 정치의 계급으로서 공화국의 시민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분이나 역사적 특권이라는 전통적 단위로서의 민족은 근대 정치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족 또는 국민으로서 이해되었다(池田嘉郎, 2012: 92-96).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된 소련의 이중 구조의 네이션 빌딩은, 공화제에 의해 소비에트 시민을 창출하려고 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즉 소련은, 공화제에 의한 국민국가의 모델과 다원적 제국 모델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소련에서의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서방의 그것들과 다르며, 보다 중층적이고 다의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지역에서 소련 붕괴와 함께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탄생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상기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기에 건설된 민족 공화국을 계승한 나라들이다. 소비에트 체제의 70여 년은 중앙아시아에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희생과 변형을 강요한 복잡한 시대이며, 독립 후 각국에 소련이 남긴 유산은 사회 전반에 다면적으로 남아 있

⁵ 해당 자치공화국이 없는 소수민족일 경우는, 소비에트 시민인 동시에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이었다.

⁶ 러시아어의 народ은 대체로 영어의 people에 해당하는 말로 민족, 국민, 인민을 의미한다.

다. 소련 해체 이후 각 공화국의 주권선언과 연방으로부터의 이탈권은 실질화되었으며, 각국은 구소련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유산과 러시아의 영향력의 급격하고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Sadri, 1997: 583). 공화국 단위의 행정 기관과 공산당 조직의 정비, 민족 엘리트 양성은 소련기부터 해 오던 것이 지속되었고, 그것은 각국의 독립 국가로서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반을 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각의 기간민족 중심의 국민 통합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宇山智彦, 2018: 10-11).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각국의 특성을 가진 국민 통합을 추진해 오는 가운데, 그 과정을 뒷받침해야 할 국가와 민족에 관한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 그에 대하여 나타니시(中西健, 2011: 137)는 신생 키르기스스탄의 국민 통합을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신생 키르기스스탄은 헌법과 국가에 대해 기간민족인 키르기스인을 주체로 한 국민 통합을 표명함과 동시에 제반 정책을 통해 소련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제반 정책을 활발히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독립 초기 국가를 상징하는 동상의 교체나 거리의 명칭 변경의 정착 상태를 보면,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키르기스스탄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가에게도, 일반인에게도,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의식, 구체적으로는 구소련에 대한 동경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키르기스스탄뿐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 통합이란 정치적인 기반을 남겨 둔 채 해체된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권력의 이행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식에도 소련의 유산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의 이중구조의 네이션 빌딩이란 소비에트 시민으로서의 공통적인 귀속 의식을 갖게 하는 것과 각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민 통합은 연방제가 소멸한 후의 독립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 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기의 소련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남긴 채 독립을 맞이했기 때문에, 소련의 유산을 기반으로 각 기간민족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와 독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각 기간민족을 중심으로 다른 소수민족의 통합도 이루

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국민 통합은 카자흐인 중심주의의 이른바 카자흐화의 노선과 비카자흐인인 영내의 모든 민족을 완만하게 통합하려고 하는 다민족 공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려 하고 있다. 소비에트 공민으로서의 그것을 유지하려는 소련의 네이션 빌딩, 즉 공민적 네이션 빌딩을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인 중심의 국민 통합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또 하나의 네이션 빌딩인 소련의 에스닉 네이션 빌딩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각 소수 민족 문화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가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소련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시발점으로 하여 건국된 나라들의 국민 통합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소련의 연장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 후 국가들에서의 권위주의와 독재적 지배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며 변화하고 있다.

2. 고려인의 국가,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존과 다문화주의

지금까지의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존의 형태와 그것이 다문화주의로의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 다민족 국가의 새로운 통합 이념이 되어 왔다(片山隆裕, 2003: 12). 그러나 다민족 국가 또는 다문화 사회의 형태가 각기 다르듯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이론과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실천되고 있다.

동서 냉전 종식 이후, 정치사상과 시민권론이 제기되면서,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95년에 출판된 캐나다의 정치 이론가 킴리카(Kymlicka)의 대표작인 『다문화주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은 동서 냉전 종식을 전후로 빈번하게 일어난 민족 분쟁과 대립에 대한 정치 이론과 시민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왔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의 독립과 국가 건설 과정에도 다문화주의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

다(渋谷謙次郎, 2020: 219-220).

그러나 구소련국가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의 전제와 배경은 키피리카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키피리카의 다문화 시민권 이론은 자유주의 문맥에서의 문제 제기이며, 입헌주의의 전통이 있는 서구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에 비해 구소련국가들은 원래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와 다민족 연방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소련에서는 소비에트 헌법에 있어서의 다민족 국가라는 자기규정과 민족 명칭을 붙인 공화국, 또는 자치공화국 등과 같이 각 민족 또는 각 에스닉 그룹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소련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걸쳐 자치 공화국과 자치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정 소수민족을 위한 민족 지구와 민족촌 소비에트 등이 세워졌다. 소련은 가능한 한 각지의 소수민족에게 민족어에 의한 교육 등을 보장하고, 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 민족지구, 민족 소비에트라는, 크고 작은 규모의 모든 민족에게 영역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였다(渋谷謙次郎, 2020: 225-228).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하위 민족 지구와 민족촌 소비에트 등은 해체되었고 민족어 교육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련기에는 민족 그룹의 영토, 언어, 엘리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소련의 국가적 지원 받아 존재했으며 각각의 민족문화가 형성 및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련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국민 국가, 시민 국가, 연방, 국가 연합, 제국의 이념적 형태와 구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를 띤 소련은 ‘어퍼마티브 액션의 제국(The Affirmative Action Empire)’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Martin, 2011: 35-39).

또한 소련기의 소수민족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레닌에 의한 민족이란 민족어의 권리와 한정된 지방자치에 의해 소수민족의 평등이 촉진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사회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 말하자면 민족이란 공산당의, 일종의 수용체로서 기능했을 뿐이다. 스탈린은 후에, 이것을 ‘형식으로서의 민족, 내용으로서의 사회주의’로 요약한 바 있다.

키피리카(Kymlicka, 1995: 69-74)는 이러한 ‘형식으로서의 민족, 내용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소련의 소수민족 다양성 수용을 위한 전략은 대부분 임시적이며,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키피리카의 해석에 의하면, 밀(Mill, 1972: 230)은 다민

족국가 완성을 위해서는 단일화한 공공 여론이 요구되며, 그것은 공통의 언어와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밀러(Miller, 1989: 51-73)도 그 공통의 여론은 민족 정체성이 공유된 국민 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밀러(Miller, 1993: 3-16)는 1993년, 그러한 관점을 수정하여 소수민족이 다수 민족과 극단적으로 다른 아이덴티티를 갖지 않는다면 다민족 국가의 구성은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민족 아이덴티티의 공유보다는 공적인 문화의 공유라고 주장했다.

소련을 거쳐 완성된 러시아어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화는 비러시아인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고 생각되어 왔다. 즉, 소련에서는 러시아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공적 문화로서 상정하고 모든 민족이 그것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련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의 확립이란, 러시아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소련 주도로서 각 민족 커뮤니티에 지배기관에 의해 선전 및 소개되어 소련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구축되어 온 것을 의미한다.

구소련국가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국민통합의 에스토니아 국가 주도적 아이덴티티의 확립의 과정은 재외 에스토니아인을 포괄하는 이념과 함께 에스토니아 공화국 내의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0년 중반에 시작된 에스토니아의 통합은, 에스토니아의 사회적 안정에 잠재적 위협 요소로 간주되는 비에스토니아인의 고립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빌헬름과 마쑈(Vihalemm and Masso, 2007: 73-74)에 의하면, 에스토니아의 통합에서 에스토니아인 중심의 민족주의와 비에스토니아인과의 공존 또는 다민족 공생에 대한 접근은 자유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각 민족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 또한, 언어나 민족적 전통, 종교적 신념, 가족의 전통과 개인의 생활 방식 등은 사회 구성원인 각 개인 또는 각 민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국가는 모든 민족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즉, 에스토니아의 통합은 모든 민족의 사적인 영역을 보장하는 한편, 에스토니아의 언어 및 문화를 사회 전반 공통의 가치에 근거하는 공적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의 언어 및 문화 기반의 국민통합이란, 소련이 구축해 온 것으로부터의 단순한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에스토니아

인의 에스토니아어 습득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미보다 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양립성은 역설적으로 상호 발전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킴리카(Kymlicka, 1995: 75-80)는 다민족 국가에서 다민족의 언어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며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더라도 다민족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어느 언어로 제공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언어란 공적인 공간에서 사용되지 않고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인 언어 이외의 언어들만 소외되고 소수민족 내부에서만 보존되고 유지되며 그 안에서 의식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란 공적인 영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페레스트로이카기인 1990년 4월의 소련권한구분법 채택에서는, 자치지역의 지위가 최대의 논쟁점이 되었다. 특히, 공화국 내의 소수민족문제는, 그 공화국 스스로가 결정했다(塩川伸明, 2007: 19-21). 즉, 페레스트로이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공화국의 자결이 우선되었고 이것은 일종의 다문화 시민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渋谷謙次郎, 2020: 222-228). 그러나 민족 자결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던 시기인 1990년에는 발트 삼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그루지야의 독립 선언이 잇따랐지만, 우야마(宇山智彦, 2018: 6-15)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요구가 소수였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해 중앙아시아 공화국 최고 회의는 소련에 머물면서 자주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권 선언을 채택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은 소련 지도부의 연방 조약에 기초한, 주권 국가연합으로 소련을 쇄신하고 유지할 방침에 기본적으로 찬성한 것이다. 그러나 소련 붕괴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잇따라 독립을 선언하였고,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도 독립국이 되었다. 우야마(宇山智彦, 2020: 98-113)는 중앙아시아는 다른 구소련국가에 비해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민족운동이 약하며 소련 해체의 흐름에 대응한 각 공화국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독립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전 공산당 제1서기가 대통령이 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구엘리트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했다. 독

립 후 카자흐스탄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권위주의 체제였다. 이는 민족이나 국민에 의한 자결이라기보다는 기존 공화국 지도부에 의한 자결의 결과이며, 그것은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의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주었다.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위헌 선거, 무리한 임기 연장,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헌법 채택 등을 강행해왔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이것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반대파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반대파 일부에게 정부직을 주어 회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권리의 박탈이나 체포 등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점차 반대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힘이 압도적이고 반대 측의 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 카자흐스탄의 권위주의 체제는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宇山智彦, 2018: 19-20).

현재는 건국을 주도했던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⁷의 대통령 사의 표명, 제2대 대통령 토카예프⁸의 정권 이양기에 있으나, 그것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지도자(елбас, 엘바스)라는 지위는 나자르바예프에게만 주어지며 그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안전 보장 회의의 총신 의장, 국회의 제1당의 누르오탄당의 당수,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의 총신 의장, 헌법 평의회의 회원을 겸직하고 있다. 2019년 3월 새 대통령인 토카예프가 취임했을 때,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장녀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상원 의원이 토카예프의 후임으로 상원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를 두고 만약 토카예프가 현직에서 배제될 경우, 다리가 나자르바예바가 카자흐스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다(岡奈津子, 2019: 25-27). 그러나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는 2019년 6월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2020년 5월 2일 상원 의장직을 상실했으며 2021년 1월에 다시 하원으로 복귀했다.⁹ 일련의 변화를 겪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에서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

⁷ 임기: 1991. 12. 1.~2019. 3. 20.

⁸ 임기: 2019. 3. 20.~현재.

⁹ <https://thediplomat.com/2021/01/dariga-nazarbayeva-headed-back-to-parliament/>, <https://eurasianet.org/kazakhstan-with-elections-chore-out-of-the-way-it-is-time-for-politics>(검색일:

르바예프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카자흐스탄 건국 이래 권위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시민이란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등과 같이 이민, 이주, 혹은 난민 등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카자흐스탄 건국 초기부터 소련의 민족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¹⁰ 또한 그들은 카자흐인 중심의 국민통합의 이념으로 재편되어 권위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독립 이래 국민 통합을 하려는 카자흐스탄의 큰 흐름은 에스토니아의 사례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카자흐스탄 또한 정부 주도에 의한 카자흐어와 카자흐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공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문화 사회의 각 민족의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하면서 카자흐스탄 시민의식을 공통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인을 포함한 각 에스닉 그룹의 특성 혹은 민족 문화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다민족 공존의 목적을 내걸고, 민족 미디어 활동이나 민족 문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주도의 국민 통합과 그 지원을 받는 민족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관계성에서 촉발되는 긴장이 존재해, 각 민족 미디어 및 단체의 독립적 자율적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각 민족문화의 유지의 측면에서, 소련기에 이미 소련화 또는 러시아화되어 온 여러 민족의 민족문화 활동에는, 민족 문화적 기반에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Lee, 2019: 140-141).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기의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민족 재생이 소련 해체로 좌절된 후, 독립 이후 카자흐 정부에 의한 독립과 국민 통합에 대해,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은 현재 카자흐스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카자흐화와 다민족 공존의 양측에 참여하고 있다(李眞惠, 2017: 187-188). 더군다나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민 통합과 국가 기관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시민의 신뢰도가 대체로 높고,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서의 결속이 강하다(Sharipova

2021. 3. 21).

¹⁰ 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지역의 볼셰비키 정권 수립 후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으로의 귀환 이주를 통해 카자흐인의 인구중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999년부터는 카자흐인의 인구 우위를 확보했다. 표 1 참조.

et al., 2017).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은 카자흐스탄에서의 다민족 공존을 위한 국가 주도
에 의한 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의 국가의 지원에 의해 그들의 민족 문화가 보존되고, 그들의 아이덴티티
또한 형성되고 있다. 고려인 역시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역사성과 독립 후의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의 사
회주의 연방인 소련의 유산, 즉 사회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카자흐스탄에
서의 다민족 통합 및 다문화주의는 구미 등에서와 토양이 다른 분명한 사실
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곳에서처럼 다문화공생을 위한 사항들이 국가정책
으로 실현될 때까지는 민족자결에 기초한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생을 위한 정
책,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적 시도는 지금 단계에서는 미비한 수준일지도 모른
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민 통합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카자흐스탄의 민족, 고려인의 특징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을 선언하고 주권국이 된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
탄 정부뿐만 아니라 소련 공민에서 주권국의 시민이 된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
족들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역사적 조국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기도 했고, 일부는 카자흐인 중심의 국민통합에 대한 반감을 이유
로, 또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러시아어가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러시아 등지
로 이주하기도 했으며,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에서의 잔류를 선
택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그중 카자흐스탄
독일인 사회는 고려인과 마찬가지로 제정 러시아기부터의 복잡한 역사적 경위
로 인해 형성되어 왔다. 두 그룹의 공통점은 이들의 이주로 제정 러시아기의 노
동력 부족이 개선되었다는 점과 두 그룹 모두 스탈린기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
주의 정치적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다(Diener, 2006: 202-206). 그러나 표 1과 같
이 카자흐스탄 독일인 인구는 1989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 이후

표 1 카자흐스탄 민족 구성의 변화(단위: 명, %)

	1979		1989		1999		2009	
전체	14,709,508	(100%)	16,222,324	(100%)	14,981,281	(100%)	16,009,597	(100%)
카자흐인	5,282,481	(35.9)	6,486,029	(40.0)	8,011,452	(53.5)	10,096,763	(63.1)
러시아인	6,019,391	(40.9)	6,092,377	(37.6)	4,480,675	(29.9)	3,793,764	(23.7)
우즈베크인	262,960	(1.8)	330,417	(2.0)	370,765	(2.5)	456,997	(2.9)
우크라이나인	900,240	(6.1)	878,184	(5.4)	547,065	(3.7)	333,031	(2.1)
위구르인	147,676	(1.0)	181,155	(1.1)	210,377	(1.4)	224,713	(1.4)
타타르인	314,065	(2.1)	322,338	(2.0)	249,052	(1.7)	204,229	(1.3)
독일인	900,343	(6.1)	946,967	(5.8)	353,462	(2.4)	178,409	(1.1)
고려인	92,516	(0.6)	101,366	(0.6)	99,944	(0.7)	100,385	(0.6)
터키인	25,718	(0.2)	49,219	(0.3)	78,711	(0.5)	97,015	(0.6)

출처: 카자흐스탄 공식 통계자료(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Статистика агенттігі, 2011: 8-10)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로도 감소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인의 인구 유출은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통일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일 정부의 재외 독일인 귀환 정책에 의해 재외 독일인의 독일로의 이주가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四釜綾子, 2009; 堀江典生, 2010).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9년 독일인 인구는 17만 8,409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한다(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Статистика агенттігі, 2011: 8; Тугжанова, 2016: 64-65).

한편,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은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이자, 그 주체가 중국 영토에 소수민족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중적인 소수민족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사회는 신장 위구르지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카자흐스탄과 이웃한 중국으로부터의 이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독특한 경위를 가지고 있다(新免康, 2002: 153).

카자흐스탄 위구르인 인구는 표 1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으며,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10만 385명으로 전체 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다(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Статистика агенттігі, 2011: 8; Тугжанова, 2016: 64-65).

독일인과 위구르인 그리고 고려인은 각각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 중 한 그룹이지만, 이 세 그룹이 카자흐스탄 소수민족으로서의 기반이 형성된 역사적 경위와 양상은 상이하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내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고려인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독일인 사회와 위구르인 사회가 고려인 사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카자흐스탄 독일인과 고려인,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해 디에너(Diener, 2006: 206-215)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강제이주에 대한 두 그룹의 인식의 차이이다. 강제이주를 당한 이들은 두 그룹 모두 강제이주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인의 경우 강제이주 당시 지정된 독일인의 특별정착지가 그들의 집중거주지로서 소련 해체 전까지 그들 대다수가 그곳에 거주해 왔다. 그러나 고려인은 강제이주 이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했으나, 1953년 스탈린 사후 이동의 자유가 허용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하면서 그들의 집중거주지는 보존·유지되지 않았다. 이 같은 집중거주지에 대한 두 그룹의 차이는 강제이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탈린 사후 특히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급속도로 도시화된 고려인사회와는 달리 소련 해체와 카자흐스탄 독립 당시까지 대다수가 강제이주 당시의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독일인 사회에서는 스스로가 강제이주에 따른 정치적 희생자로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중거주지의 유무(또는 집중거주지에서 거주한 시간이 길수록)와 그곳에서 형성되어 온 집단의 기억과 아이덴티티의 보존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집단의 아이덴티티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집중거주지가 보존되어 있던 독일인에 비해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분산되어 온 고려인사회의 경우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그룹의 차이가 카자흐스탄 시민이라는 귀속의식의 정도와 국민통합에 대한 대응의 일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두 그룹의 역사적 조국, 즉 독일과 한국 및 북한의 정책을 둘러싼 차이이다. 소련 해체 후 카자흐스탄의 불안정한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은 카자흐스탄

표 2 구소련 지역에서 독일로 귀국한 독일인(단위: 명)

연도	연방행정조직		
	지원	승인	이민
1990	-	-	-
1991	19,288	12,583	-
1992	19,232	15,879	-
1993	14,299	15,785	16,597
1994	27,704	16,466	8,811
1995	29,824	22,777	15,184
1996	17,302	13,211	15,959
1997	21,098	12,931	19,437
1998	11,251	12,233	17,788
1999	24,854	15,549	18,205

출처: 디에츠의 논문(Dietz, 2000: 640)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내의 인구 유출을 초래했다. 표 2에서 보듯이, 고려인과는 달리 독일인은 카자흐스탄 독립 전년에 실현된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 해체 이후 독일 정부의 재외 독일인 귀환정책에 의해 제시되어 온 역사적 조국에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을 수용한 상당수의 독일인이 독일로 귀환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재외 독일인 귀환정책이야말로 고려인에 비해 독일인의 역사적 조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요인이다(Diener, 2006: 215-220).

1990년대 이후 소련과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려인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전후의 한국은 고려인의 역사적 조국으로서, 고려인의 귀환을 지원하는 즉, 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¹¹ 이에 비해 독일 정부의 재외독일인 귀환정책의 실행은 독일인과 고려인의 차이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¹¹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부터 구소련 고려인은 각국의 체제 이행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한국 내에서 고려인을 받아들이는 정책 기반이 부족했지만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2007년 3월부터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비한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비자를 발급하고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었다(이민정책연구원, 2015: 2).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위구르인과 고려인사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2004년 공식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은 21만 7,000명이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는 1934년에 만들어진 특별 위구르인 거주지역이 존재한다(エルタザロフ, 2010: 219).

신멘(新免康, 2002: 213)의 1998년과 2000년 위구르인사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사회의 특징은 그들의 생활기반은 집중거주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구르어 교육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또 무엇보다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사회의 존립 기반은 위구르어와 위구르어로 교육하는 학교라고 지적되었다. 또한, 엘타자로프(エルタザロフ, 2010: 219)는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사회에는 위구르인으로서의 민족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약 70개가 넘는 위구르어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으며 거기서 약 2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위구르어로 실시되는 학교 교육은 위구르인의 민족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 문화적 기반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위구르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기반을 보존 및 유지하며 카자흐스탄의 국민통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구르어로 교육하는 학교가 민족문화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위구르인사회와는 달리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으며, 민족어의 기반도 약한 고려인사회의 경우 그들 사회를 존립하게 하는 민족 문화적 기반은 무엇일까. 고려인의 경우, 현재 집중거주지도, 민족어로 이뤄지는 학교 및 어떠한 교육 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소련에서는 고려어로 교육하는 것이 1937년부터 금지되었다.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는 그때 이후 고려인을 위한 공립학교는 더 이상 설립되지 않았고, 고려인과 같은 소수민족은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아 왔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어로 교육하는 학교가 조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몇 세대 전부터 현재까지 고려인은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아 왔고, 언어의 부분에서는 러시아어로 완전한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이다(エルタザ로フ, 2010: 221-223).

이처럼 독일인과 고려인 양측에서는 비해 집단거주지 보존의 미비로 인한 강제이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독일인에 비해 고려인의 경우 역사적 조

국의 귀환정책이 미비한 것이 그들이 카자흐스탄에 잔류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위구인 사회와의 비교에서는, 위구르에 비해 소련기에 이미 급속한 도시화와 러시아어화를 경험해 온 고려인사회는 민족어와 민족어 중심의 교육기반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는 소련기 러시아어화되었고,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구성원으로 카자흐스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카(岡奈津子, 2004: 98-99)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그들의 역사적 조국과의 물리적·언어적·문화적·정신적 거리가 멀고, 조국의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과의 아이덴티티의 차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더욱이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고려인의 역사적 조국인 한국이나 북한의 고려인 귀환정책의 미비로 귀국 대신 잔류하게 된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 사용집단 중 한 소수민족으로서 소련이나 조국 그리고 타 구소련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한국에 재외동포 귀환정책이 실시되면서 각국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책의 실행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즈베키스탄 국민통합 정책의 특성에도 기인한다. 이처럼 고려인사회는 역사적 조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체제 및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절에서 언급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특성은 넓게 보면 구소련 고려인사회 전체의 특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각국 고려인사회의 비교를 통한 특징과는 다르게, 카자흐스탄 타 소수민족과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특징은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서의 강한 귀속감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이것은 타 구소련 고려인사회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II. 맺음말

본고는 현대 고려인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

회를 사례로, 제정 러시아기와 소련 그리고 포스트 소련기의 국가와 민족의 의미와 변화,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공생과 다문화주의의 논의 가능성, 그리고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들과의 비교를 통해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규정된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간단히 언급한 후 제정 러시아기와 소련기에 있어서의 상기의 개념은 소련의 네이션 빌딩과정을 통해 설명했다. 종합하면, 소련의 네이션 빌딩은 모든 민족이 소비에트 시민으로서의 공통적인 귀속 의식을 갖게 하는 한편, 각 자치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중구조로 진행되었다. 그 중심 이데올로기는 러시아어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화였고 소비에트 정권은 이를 공적 문화로서 상정하고 모든 민족이 그것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이는 소련 주도로서 각 민족사회에 지배기관에 의해 선전 및 소개되어 그것이 소련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구축되어 왔다. 소련 해체 이후 주권국이 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소련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시발점으로 하여 건국된 나라들의 국민 통합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의 유산을 기반으로 각 기간민족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와 독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각 기간민족을 중심으로 다른 소수민족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소련의 연장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통치제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형성되며 변화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국민통합은 카자흐인 중심주의인 카자흐화와 모든 비카자흐인을 완만하게 통합하려고 하는 다민족 공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현하려 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이자 사회주의 연방인 소련의 유산, 즉 사회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카자흐스탄에서의 다민족 통합 및 다문화주의는, 구미 등에서와는 다른 토양을 갖고 있고, 현재 카자흐스탄에서의 민족자결에 의거한 다민족 공생 정책 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책적 시도는 초동단계에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민 통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변화 또는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독일인과 위구르인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언급한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립 직전까지 집단 거주지가 보존 및 유지되었던 독일인에 비해 스탈린 사후 급격히 인구의 도시화가 진행되어 집단거주지의 보존이 어려웠던 고려인은 강제이주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독일의 경우, 역사적 조국으로의 귀환정책이 마련되어 많은 독일인이 독일로 귀국한 것과는 달리 당시의 한국과 북한에는 그러한 정책상의 마련이 미비했고, 이로 인해 고려인의 역사적 조국으로의 귀환은 활발하지 못했던 점이다. 둘째,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위구르인의 경우, 집단 거주지의 보존 및 유지의 정도가 고려인보다 잘 되어 있고, 민족어와 민족어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민족의 존립 기반이 되어 온 점은, 소련기 이미 도시화되고 러시아어화된 고려인과는 다른 점이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는 제정 러시아기 극동으로의 최초 이주부터 시작되었고 소련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경험하며, 러시아어화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구성원으로 카자흐스탄화되고 있다. 고려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체제 형태와 민족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또한 해당국에서 민족으로서의 입지는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변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사례로 검토한 각국 고려인사회의 민족의 특성이나 문화적 기반뿐만 아니라, 향후 고려인사회의 역사적 조국과의 관계, 각국 고려인사회 간의 네트워크 현황, 해당국에서의 타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입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내 각 민족 그룹들의 특성이 각국의 국민통합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각국 고려인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1년 2월 10일 | 심사일: 2021년 3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참고문헌

- 김계르만. 2014. 『나는 고려사람이다』. 경기도: 국학자료원.
대한민국외교부. 2019. 『재외동포현황 2019』. 대한민국외교부.

- 성동기. 2009.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의 새로운 유형과 연구 과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민족연구』 8호, 59-81.
- 신형진·이채문. 2015.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99년 센세스 자료의 분석.” 『디아스포라연구』 9권 17호, 237-263.
- 이민정책연구원.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조사』. 재외동포연구재단.
- 이채문. 2012.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16권 1호, 147-184.
- 황영삼. 2014.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 『민족연구』 57호, 154-188.
- 池田嘉郎. 2012. “帝国、国民国家、そして共和制の帝国.” 『Quadrante: クアドランテ: 四分儀: 地域・文化・位置のための総合雑誌』 14, 81-99.
- 地田徹朗. 2004. “ソ連邦中央=カザフスタン関係の変遷(1980-1991): 党エリート人事動向を素材として.” 『スラヴ研究』 51, 29-61.
- 李眞惠. 2017. “베레스토로이카期におけるコリョ・サラム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 1986年-1991年の『レーニン・キチ』の分析から.” 『イスラーム世界研究』 10, 177-191.
- 李眞惠(forthcoming). 2021. “研究ノート: 中央アジアにおける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研究序説: 呼称とサブ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によせて.” 『コリアン・スタディーズ』.
- 宇山智彦. 2018. “現代政治史: 歴史的背景・ソ連の遺産と独立国家建設.” 『現代中央アジア』. 日本評論社.
- . 2020. “베레스토로이카期中央アジアにおける共和国の自立と民族問題の関係.” 『国際政治』 201, 98-113.
- エルタザロフ・ジュリボイ. 2010. 『ソヴィエト後の中央アジア—文化、歴史、言語の諸問題』. 一心社.
- 岡奈津子. 2004. “民族と政治.” 『現代中央アジア論』, 98-99. 日本評論社.
- . 2019. 『<賄賂>のある暮らし』. 白水社.
- 片山隆裕. 2003. 『民族共生への道』. 九州大学出版会.
- 塩川伸明. 2004. 『多民族国家ソ連の興亡I—民族と言語』. 株式会社岩波書店.
- . 2007. 『多民族国家ソ連の興亡III ロシアの連邦制と民族問題』. 岩波書店.
- 四釜綾子. 2009. “現代移民の多様性: トイツ系帰国者Aussiedler受け入れ政策と統合問題—移民と血統主義の間で—.” 『国立民族博物館調査報告』 83, 159-168.
- 渋谷謙次郎. 2020. “ロシア多民族連邦制と「多文化主義」: 帝国と民族自決のあとで.” 『多

- 文化主義の政治学』, 法政大学出版局.
- 新免康·リズワン·アブリミティ. 2002. “アルマトゥ市におけるウイグル人社会: 学校教育の情況を中心に.” 新免康編. 『中央アジアにおける共属意識とイスラームに関する歴史的研究』, 153-241.
- 高橋清治. 1990. 『民族問題とパレストロイカ』, 平凡社.
- 中谷義和. 2012. “国民国家への視座.” 『立命館法學』3, 475-544.
- マルティニエロ・マルコ 著. 宮島喬 訳. 2002. 『エスニシティの社会学』, 白水社.
- 中西健. 2011. 『中央アジア・クルグズスタン旧ソ連新独立国家の建設と国民統合』, 明石書店.
- 半谷史郎·岡奈津子. 2005. “書評論文 旧ソ連朝鮮人研究の現状: 李愛俐娥著『中央アジア少数民族社会の変貌: カザフスタンの朝鮮人を中心に』を読んで” 『アジア経済』46(10), 66-79.
- 堀江典生. 2010. “移民大国ロシアの軌跡: 中央アジアからの労働移動に着目して.” 『アジア・東欧研究』39, 13-25.
- 渡辺日日. 2008. “ロシア民族学に於けるエトノス理論の攻防.”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78, 65-109.
-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Статистика агенттігі. 2011.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дағы ұлттық құрам, діни наным және тілдерді меңгеру*. Астана: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Статистика агенттігі.
- Тугжанова. Е. Л. 2016. *Народ Казахстана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Казак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Diener Alexander C. 2006. “Homeland as Social Construct: Territorialization among Kazakhstan’s Germans and Koreans.” *Nationalities Papers* 34(2), 201-235.
- Dietz Barbara. 2000. “German and Jewish Migratio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o Germany: Background, Trend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6(4), 635-652.
- Giddens, Anthony. 1985.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Press.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inhye. 2019.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Diaspora (Koryo saram) in Contemporary Kazakhstan: An Analysis Based upon Articles of Koryo

- Ilbo,” *Korean Diaspora across the World: Homeland in History, Memory, Imagination, Media and Reality*, 131-145. Lexington Books.
- Martin, Terry. 2011.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Cornell.
- Mill, J. S. 1972.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Utilitarianism,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ed. H. Action. London: M. Dent & Sons Ltd.
- Miller, David. 1989. *Market, State and Community: The Foundations of Market Soc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David. 1993. “In Defense of Nationality.”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10(1), 3-16.
- Sadri, Housman, A. 1997. “Integration in Central Asia: From Theory to Policy.” *Central Asian Survey* 16(4), 573-586.
- Sharipova, Dina, Aziz Burkanov and Alma Alpeissova, 2017. “The Determinants of Civic and Ethnic Nationalisms in Kazakhstan: Evidence from the Grass-Roots Level.”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23(2), 203-226.
- Vihalemm, Triin and Masso, Anu. 2007. “(Re)Construction of Collective Identitie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Case of Estonia.” *Nationalities Paper* 35(1), 71-92.
- Yakobson, Alexander. 2013. “State, National Identity, Ethnicity: Normative and Constitutional Aspects.” *Nations: The Long History and Deep Roots of Political Ethnicity and Nationalism*, 328-3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Contemporary Status of the Ethnic Group in Kazakhstan and the Koryoin's Nation

Jinhye Lee Foreign Postdoctoral Fellow of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

The Koryoin were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who had originally migrated from the Joseon peninsula to the far East, then under the Russian Empire. They were an ethnic minority group in the Soviet Un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Koryoin became a minority group in each of the independent nations. In other words, the Koryoin ethnic group is now variously known as Russia's Koryoin, Uzbekistan's Koryoin, and Kazakhstan's Koryoin. Influenced by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national policies in their state, their status as a single ethnic group has chang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temporary Koryoin community, with a focus on those in Kazakhstan, this paper examines the evolving definition of national and ethnic groups during the Russian Empire, and Soviet and post-Soviet periods and the possibility of multi-ethnic symbiosis and multiculturalism in Kazakhstan. Additionally,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 Kazakhstan Koryoin community through comparisons with other ethnic minorities in Kazakhstan.

Keywords | post-Soviet, Kazakhstan, Koryoin, nation, ethnic group

